

# 청소년의 휴대전화중독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 : 부모감독과 애정적 양육태도의 중재효과

이 윤 경(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박사과정) · 이 미 숙(가톨릭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휴대전화중독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그리고 부모감독과 애정적 양육태도의 중재효과가 어떠한지 규명해봄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실증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0년 6월에 실시한 패널자료로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2,153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휴대전화중독 척도는 이시형 외(2002)가 사용한 것으로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는 .86이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문선보(1989), 이상필(1990), 민병수(1991)의 척도를 참고로 정화실(1991)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는 각각 .72 .70 .54 .83이다. 부모감독과 애정적 양육태도 척도는 허묘연(2000)이 제작한 것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척도이며 각 3개 문항씩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는 각각 .76과 .76이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alpha$ 계수, 피어슨 상관관계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변수의 경우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 값을 센터링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휴대전화중독은 평균 2.95로 척도의 점수 범위(1-4점)를 고려할 때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은 학습활동 2.27, 학교규칙 2.24, 교우관계 2.00, 교사관계 2.29로 척도의 점수 범위(1-4점)를 고려할 때 중간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부모감독 평균은 1.84, 애정적 양육태도 평균은 1.95로 척도의 점수 범위(1-4점)를 고려할 때 중간수준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둘째, 측정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청소년의 휴대전화중독은 학교생활적응과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감독 및 애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중독과 각각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청소년의 휴대전화중독 및 부모감독과 애정적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한 결과, 휴대전화중독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아졌으며, 부모감독과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졌다. 넷째, 청소년의 휴대전화중독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대해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 경우에 휴대전화중독이 심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특히,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우관계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이 낮기 때문에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의 휴대전화중독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대해 부모감독은 중재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휴대전화중독이 심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아지지만, 이때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중재효과로 작용함으로써 휴대전화 중독이 심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보다 강화시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